

익산시, 시립교향악단 창단 예산안 반복 논란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 추진

음악단체, "특정 단체 중심 창단 예산 상정안 즉각 철회 해야" 촉구

익산시가 시립교향악단 창단을 위한 예산안을 놓고 입장을 번복하고 있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여기에 예술단체들이 익산시의원의 정치적 거래가 의심되는 특정 단체 중심의 시립교향악단 창단을 위한 예산 철회를 요청하고 나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립교향악단 운영을 위해 4억8782만4000원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상정했다.

시는 지역의 문화육구 촉족 등을 위해 4개월 동안 시립교향악단을 임시 운영 후 이를 기반으로 교향악단의 확대 등에 나설 계획이었다.

시는 이 과정에서 시의회, 음악 단체 등과 2차례 간담회 후 교향악단 설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후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돌연 관련 예산안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내보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시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음악단체들의 반발과 함께 시작됐다.

20일 (사)한국음악협회 익산지부, (사)한국음악협회 전북지회, 특스필하모니, 익산필하모니, 아트오케스트라, 필리체 등 6개 단체 대표들이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정 단체를 위한 시립교향악단 창단 예산상정안 철회를 익산시와 익산시의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특정 단체에 33억여원의 혈세가 투입됐음을 지적했다.

또 4차례 부결된 시립교향악단 예산이 또 다시 특정 단체 도와주기 식으로 편성된 것은 시



20일 (사)한국음악협회 익산지부, (사)한국음악협회 전북지회, 특스필하모니, 익산필하모니, 아트오케스트라, 필리체 등 6개 단체 대표들이 전북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정 단체를 위한 시립교향악단 창단 예산상정안 철회를 익산시와 익산시의회에 촉구하고 있다.

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점을 피력했다.

특히 특정 시의원을 거론하며 관련 예산안이 도시관리공단 운영과의 정치적 거래에서 파생된 것으로 지칭하며 이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특정 단체를 위한 시립교향악단 창단 예산 상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면서 "정치적 목적에 부합한 창단 예산 상정안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당초 시의회, 7개 음악단체와 가진 간담회에서 시립교향악단 예산 편

성을 동의하기로 해 이를 추진했던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 예산 통과를 위해 시의회의 승인을 거치는 과정에서 설득 논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이를 철회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의 7개 음악단체가 모여 예산 편성 등에 동의해 이를 추진하게 됐다"면서 "7개 단체를 제외한 6개 단체의 반발이 있고 의회 설득 논리가 부족할 것 같아 이를 철회하게 됐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북문화관광재단, 도내 거주 만 65세 이상 예술활동 증명 완료자 대상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은 올해부터 예술인 의료비(검진비) 지원 사업을 추진, 지난 16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를 시작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예술인으로,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자다. 또한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범위 내에서 기준 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는 예술인이다.

지원내용은 검진대상 예술인이 도내 건강검진센터를 보유한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하면 재단에서 해당 기관에 직접 지원비를 입금하는 방식으로, 예술인 1인당 30만 원씩 총 50명에게 지원된다.

접수 방법은 이메일(jb_7445@hanmail.net)이나 전라북도 예술인복지증진센터(전북예술회관 1층)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공고일 기준 만 65세 미만이거나, 도내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예술인 그리고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 기준중위소득을 초과한 예술인 및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상근 예술인 등이다.

이기전 대표이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도내 예술인들에게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이 사업이 조금이나마 위도가 됐으면 한다"며, "향후 예술활동증명이 미완료된 예술인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지원 체계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고는 재단 누리집(<http://www.jbct.or.kr>) 열린 광장에서 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예술인복지증진센터(230-7428, 7448)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판소리합창단

'여기, 연극이 있다' ... 대한민국 소극장 열전 in 전주 오늘 개막

25일까지 3개 작품 전주서 공연

전주 극단 빈칸은 21일부터 25일까지 전주 아하이트홀 소극장에서 2021 대한민국 소극장 열전 in 전주 공연을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대한민국 소극장 열전은 2012년부터 각 지역의 소극장이 연합해 출발한 네트워크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6개 도시(구미·대구·광주·부산·전주·춘천)의 소극장이 참여하고, 그 중 3개 작품이 전주에서 공연된다.

이번 공연은 오는 21일 오후 8시 연극 '택배 도난 사건' 공연을 시작으로 23일 오후 8시 극단 도모(춘천)의 '다시, 봄날', 25일

오후 3시 극단 한울림(대구)의 '맛있는 새, 닭'이 관객들을 만난다.

특히 전주 극단 빈칸의 '택배도난사건-행복아파트 두 번째 이야기'는 아파트에서 택배가 없어지는 사건을 통해 우리 주위의 편견과 오해에 대해 꼬집는 작품이다.

나와는 다르다는 이유로 행해지는 편견과 그것으로 인한 돌이킬 수 없는 상대적 고립과 인격이 무너지는 폭력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폐쇄적인 현실을 유쾌하게 풀어간다.

이어 춘천 극단 도모의 '다시, 봄날'은 우리 시대를 이끌어 왔던 장년층을 무대의 주인공으로 올린다. 숫자뿐만 아니라 위축하지 않고 이 시대의 어른으로 당당하게 살아

가길 바라는 마음과 그들의 지나온 시간에 대한 공경과 응원의 메시지를 담으려 한다. 마지막으로 대구 극단 한울림의 '맛있는 새, 닭' 공연은 대한민국 통닭 세계를 통해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이 압권으로, 대구연극제에서 처음으로 6관왕에 오른 작품이기도 하다.

평화로운 한 시골 닭장에 새로운 압박 한 마리가 찾아오게 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는 해학과 풍자가 묻어났다. 배우들의 개성 넘치는 닭 연기 또한 활짝이다. 웃음 속에 생각할 거리 또한 숨겨져 있다.

한편 이번 공연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뉴시스

차와 이야기가 있는 국악콘서트 '다담'

국립민속국악원, 28일 배우 김명곤·전주판소리합창단 출연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오는 28일 오전 11시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에서 차와 이야기가 있는 국악콘서트 '다담'을 개최한다.



배우 김명곤

이야기손님에는 배우 김명곤씨가 출연하며, 우리 음악 즐기기에 적합한 실용적인 무대를 선보이는 전주판소리합창단이 함께한다.

이날 공연에서는 영화 '서편제'의 유봉 역을 연기해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배우 김명곤이 '꿈꾸는 광대, 예술과 인생'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어 박초월 명

창에게 소리를 배우던 추억, 영화 '서편제'의 후일담, 48세의 나이에 최연소 국립극장장으로 활동했던 당시 혁신적인 예술경영 사례, 문화관광부 장관 등 문화 행정가로 활동했던 시절의 경험담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다.

전주판소리합창단은 판소리와 합창이라는 양식에 다양한 장르를 가미해 여성소리꾼들이 실용적인 무대를 선보이는 단체로, 이번 공연에서는 '비림야, 완산칠봉 비림야', 이목사의 시를 바탕으로 한 '광야' 등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관람은 사전 예약제(선착순 150명)로 진행하며, 예약은 전화(063-620-2329)나 '국립민속국악원' 카카오톡 채널로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